

# 나폴리 김민재 “나폴리가 부르는데 다른 곳 의미 있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진출...나폴리 입단 첫 기자회견  
이탈리아 말로 “힘내자. 나폴리여, 영원히” 하자 취재진 박수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 진출한 국가 대표 수비수 김민재(26·SSC나폴리)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당찬 포부를 밝히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민재는 7월30일(현지시간) 나폴리의 프리 시즌 훈련이 진행 중인 이탈리아 카스텔 디 산 그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0여분 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하며 새 출발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김민재는 “구단과 감독님이 적극적이라는 걸 느꼈다. 나폴리에서 오라고 하는데 다른 제안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빅 클럽이고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며 나폴리를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유서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나폴리를 선택한 이유를 자주 묻는데 나폴리가 나폴리라

서 선택했다”고 답했다. 자신에 대해선 “수비에서 적극적인 선수이고,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 개인적으로 커버 능력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자세”라고 소개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했고, 나폴리라는 좋은 팀에 왔다. 성장을 멈출 생각이 없다. 우선 경기에 뛰어와야지만 한 단계 성장해 이탈리아에서 임팩트를 많이 남기고 싶다”고 보였다. 김민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로 이적한 간판 수비수 칼리두 콜리발리의 대체자다. 이에 대해선 “콜리발리는 세계적인 수비수 중 하나다. 어떤 선수가 콜리발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며 “(여러 대체에서) 콜리발리의 대체자로 왔다고 하는데 압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잘하는 것을 팀에 보여주고 싶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 선수가 세리에A에서 뛰는 건 과거 페루자에서 뛰었던 안정환과 헬라스 베로나의 이승우(수원FC)에 이어 김민재가 세 번째다. 김민재는 “팀에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 선수들이 많이 조언해줬다. 세리에A는 처음인데 우선 이 리그 안에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민재는 동료들 앞에서 선보인 화려한 신고식이 화제가 됐다. 한 손에 음료수 병,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말춤을 곁들여 ‘강남스타일’을 열창했다. 김민재는 “동료들이나 구단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잘 한 것 같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경기장에 나서게 된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감독님과 처음 해 보는데 수비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다. 늦게 합류한 만큼 전문적으로 맞춰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민재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Forza Napoli Sempre(힘내자. 나폴리여, 영원히)”라고 이탈리아 말을 던져 취재진의 박수를 받았

뉴스

## WBC 사령탑 발표 이후...더 신중해진 이강철의 작전 지시

KT 이강철 감독, 내년 3월 열리는 WBC서 대표팀 이끌어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대회까지 아직 8개월 여가 남았지만, 국가대표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을 이끌게 된 이강철 KT 감독이 남모를 부담감을 털어냈다. 이 감독은 7월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2 신한은행 울 KBO리그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WBC 이야기가 나오자 “경기 때는 집중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아서) 다른 팀 투수를 체크하거나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 의식이 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이 감독은 “팀 성격이 더 좋아야 하지 않나. 작전을 내거나, 투수교체를 할 때도 더 신경이 쓰인다. 선임 발표가 났을 때도 그런 부분에 이

야기가 나오다 보니 부담이 좀 간다”고 털어놨다. WBC 국가대표팀 기술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을 밝히면서 “단기전의 특성상 마운드 전력 운영 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이 감독이 KBO리그에서 투수 코치로 오랜 경력을 쌓았고, 선수들에 대한 뛰어난 분석 및 효율적인 기용 능력이 높기 위해 최종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19년 KT 지휘봉을 잡고 사령탑에 데뷔한 이 감독은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그해 6위에 올려놨다. 이듬해는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더니 지난해는 창단 첫 통합우승을 일궈내며 남다른 지도력을 선보였다. 최근 2회 대회 연속 예선 탈락의 아픔을 맛본 대표팀을 이 감독에게 맡긴 것도 이러한 리더십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즌 중이다 보니 소속팀인 KT의 경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대신 대표팀을 구성할 리그 선수들에 대한 체크는 주로 경기 후에 이뤄진다. 이 감독은 “이전부터 하이라이트는 매번 본다. 지금은 체크할 부분이 더 있다.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선수는 더 체크하게 된다. 경기 중엔 당장 경기를 해야하니 다른 선수를 더 본다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 이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월드컵 1위 등극

세계실내선수권 금메달·세계선수권 은메달 등 꾸준한 성과

올해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스마일 점퍼’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세계육상연맹의 각 세부종목 월드컵에서 남자 높이뛰기 부문 1위에 올랐다. 한국 육상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이상혁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최근 12개월 간의 성적으로 정하는 월드컵에서 1위를 꿰찼다. 세계육상연맹은 7월29일(한국시간) 각 세부종목 월드컵을 업데이트했다. 7월 26일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뛰기 월드컵에서 이상혁은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키던 장마르코 탐베리(이탈리아)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로 점프했다. 세계육상연맹은 기록 순위와 월드컵을 따로 집계한다. 이상혁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실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가 2m37을 뛰어넘으면서 실외 기록 순위에서는 2위로 밀렸다. 지난 2월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실외 대회에서 2m36을 넘어 2022시즌 실외 통합 순위에서 1위를 달리던 이상혁은 이 자리도 바심에 내줬다. 하지만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며 눈부신

성과를 낸 이상혁은 월드컵에서는 1위에 등극했다. 월드컵은 최근 약 12개월 동안의 각 대회 기록, 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정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남자 높이뛰기는 최근 약 12개월 동안 치른 대회 중 해당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경기 평균 점수로 월드컵을 정한다. 세계육상연맹은 26일 기준으로 월드컵을 업데이트하면서 지난해 8월초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 기록은 월드컵 산정에서 제외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바심과 공동 1위에 오른 탐베리는 1592점을 따냈다. 이상혁이 2m35로 도쿄올림픽 4위에 올라 얻은 점수는 1474점이었다. 도쿄올림픽 결과를 포함해 정한 이달 11일 기준 월드컵에서 탐베리가 평균 1404점으로 1위, 이상혁이 평균 1376점으로 2위였다. 하지만 도쿄올림픽 결과를 제외하고, 지난 26일 끝난 2022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를 랭킹 포인트에 포함하면서 이상혁이 탐베리를 제쳤다.



이상혁의 랭킹 포인트 산정에 포함된 5개 경기 성적은 2022 실외 세계선수권 결선 2위(2m35·1534점), 예선 1위(2m28·1261점)와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1위(2m33·1406점), 세계실내선수권대회 1위(2m34·1415점), 반스카 비스트라라 실외 대회 1위(2m35·1324점)다. 이를 통해 이상혁은 평균 1388점을 얻었다. 탐베리가 최근 12개월 동안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경기 평균 점수는 1377점이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바심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전한 대회가 3개에 불과해 월드컵 산정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4위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이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대회 우승,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우승,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등의 성과를 내며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자리매김했다.

뉴스

## ‘16회 연속 월드컵’ 한국 여자농구대표팀

“작지만 활동량으로 커버”...오늘 소집

16회 연속으로 국제농구연맹(FIBA) 여자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이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한다. 정선민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9월22일 호주 시드니에서 막을 올리는 제19회 FIBA 여자월드컵을 대비해 8월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소집 훈련에 들어간다. 박지수, 강이슬(KB국민은행), 배혜윤, 윤예빈(이상 삼성생명), 진안(BNK), 신지현(하나원큐), 김단비, 박혜진(이상 우리은행) 등 예비엔트리 16명이 모일 예정이다. 코칭스태프는 19~20일 청주체육관에서 라트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고, 최종엔트리 12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 감독은 “세계무대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작은 신장임에도 많은 활동량으로 커버하는 것이다. 신장은 작지만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13위)은 월드컵 본선 A조에서 세계 최강 미국(1위)을 비롯해 벨기에(6위), 중국(7위), 푸에르토리코(17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상대로 두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이에 대해선 “상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크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제19회 여자농구 월드컵...16회 연속 본선 진출  
16명 소집 훈련...라트비아와 두 차례 평가전 후, 최종엔트리 12명 확정

(26위)와 경쟁한다. FIBA 랭킹은 네 번째로 높지만 실제 전력은 한국과 푸에르토리코가 최약체로 평가받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는 국내 WKBL에서 외국인선수로 뛰었던 존큐엘 존스가 귀화 선수로 있어 전력이 막강하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지난 2월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존스를 앞세워 2020 도쿄올림픽 은메달의 일부를 쥘는 이변을 연출했다. 정 감독은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다. 작지만 빠르게 많이 움직이기 위해선 강한 체력이 절실하다. 12명 전원을 로테이션 기용해 시종일관 공수에서 압박하는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며 “강한 코트 체력 훈련을 하면서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훈련을 겸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대표팀은 다음달 19일과 20일 라트비아를

다. 월드컵 본선에 가지 못했지만 최종예선 때 뛰었던 선수들이며 “우리 선수들이 높이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볼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농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라트비아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둘러 일본과 2-3회 연습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12개국 출전하는 월드컵은 6개국 이 두 개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4개국 8강 토너먼트를 갖는다. B조에선 프랑스, 세르비아, 일본, 말리, 캐나다, 후주가 경쟁한다. 1964년 페루대회를 시작으로 1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은 2위다. 1967년, 1979년에 기록했다. 최근에는 2010년 대회의 8위 이후 8강에 들지 못했다. 2014년 13위, 2018년 14위를 차지했다.

## 한국남배구, 체코에 진땀승...챌린저컵 3위로 마무리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이 체코를 제압하고 발리볼챌린저컵에서 3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임도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은 7월3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체코와의 ‘2022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챌린저컵’ 3·4위전에서 3-2(25-19 25-16 24-26 23-25 22-20)로 진땀승을 거뒀다. 한국은 지난 18일 8강전에서 후주를 꺾어 4강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튀르키예와의 준결승전에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대회 우승팀에 주어지는 2023년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출전권을 노리던 한국대표팀의 도전도 무산됐다. 한국은 3·4위전에서 체코의 높이에 고전했지만, 마지막 5세트를 승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임동혁은 서브에이스 4개, 블로킹득점 1개를 포함해 33점을 올려 승리를 이끌었다. 임성진과 최민호는 각각 15점, 10점을 기록해 승리에 힘을 보탰다.